

바다이야기·인형뽑기·로또...

사행산업 ‘우후죽순’ 불황 그림자 커진다

광주, ‘IMF 산업’ 다시 유행

‘로또, 바다이야기, 인형뽑기...’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이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이후 나타났던 사행성 산업이 최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표적인 서민을 겨냥한 사행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

특히 한국 경기침체의 대표적이었던 풍경이었던 ‘성인게임장’과 ‘인형뽑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행성 성인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과거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던 성인게임장이 광주시 남구 주월동과 동구 계림동, 북구 용봉동, 광산구 침단 등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는 일정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취 한때 사회 문제가 됐다.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광주지역 성인게임장들

은 옛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게임을 통해 환전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들 게임이 점점 도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게임기 한 대당 1시간에 투입되는 최고액이 정해 지는데 과거 IMF시절보다 3~5배 많은 5만~18만원을 걸 수 있는 게임기를 비치한 성인 게임장이 늘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과거 IMF 시절처럼, 인근에 환전소를 두고 게임을 통해 얻은 상품권을 건네주고 있다.

주월동 등지에는 이미 20여곳의 게임장이 자리를 잡았고, 과거 바다이야기보다 훨씬 높은 배당률로 사용자들을 유혹하는 게임장도 등장했다.

힘든 시절, 적은 돈으로 만족감을 주면서 인기를 끌었던 ‘인형뽑기’도 다시 나타났다. IMF 시절 극성이었던 인형뽑기 자판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 갔지만 최근 광주지역 곳곳에 다시 들어 서고, 아예 여러 개의 자판기를 설치한 전문 인형뽑기 매장도 출현했다.

▶2면으로 계속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옛 광주은행 본점 8층 유리창 ‘5·18 탄흔’ 감식 ... 50mm 구멍 헬기 기총소사일까? ▶관련기사 6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이 18일 광주시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구멍 뚫린 옛 광주은행 본점 8층 유리창’을 감식하고 있다. 국과수는 이날 “1980년 5월 계엄군 총탄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창 3점의 탄흔 생성 경위를 밝혀달라”는 5·18기록관 측 요청을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특검, “2월초까지 대면조사”朴에 최후 통첩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검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뇌물 등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쪽으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며 심리적으로 압박 육죄는 양상이 다. <관련기사 3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못박으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현재의 수사 상황에 비춰 아무리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상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이외에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대가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17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사실상 명단 작성·관리

의 ‘정점’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드러난 헬기사격 5·18 진실 밝히자
이제 발포명령자 규명해야 ▶6면

청년이 미래다 - 청춘창고 ▶18면

박원순 “야권 공동경선·공동정부 구성하자”

광주일보 인터뷰서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조기 대선에서 ‘야권의 공동 경선과 공동 정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드라마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 5면>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6층 집무실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만형인 민주당에서 우선 기록권을 내려놓고 공동 경선과 공동 정부 구성에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 공동 정부 구성은 추후 협의하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 “대세론은 원래 무너지기 위해 있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문 전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구체적 활동, 경험, 성취 등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적 정계개편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이지만 전 유엔 총장의 위상을 국가적으로 수행하면 좋겠다”며 부정적 인식을 예들려 나타냈다.

호남 공약과 관련, 박 시장은 “아시아 문화전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한 3조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당의 하드웨어는 만들어졌으므로 광범위한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광주와 호남을 아시아의 진정한 문화 수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착수...설 이전엔 힘들 듯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먼저 농식품부, 해수부, 중소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권익위를 상대로 주무부처로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설 명절 이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7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과

함께 할 분들을 모십니다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기획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참석문의 02-739-5868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관 역	개회 일시	장 소
수도권	'17.1.18(수) 14:00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원권	'17.1.19(목) 14:00	강원도 춘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대강당
충청권	'17.1.20(금) 14:00	대전 중구 대전문화재단 진흥나래관 5층
경상권	'17.1.23(월) 14:00	부산 남구 부산문화재단 감만창의 문화촌 3층
전라권	'17.1.24(화) 14:00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하 1층 대강당

시간

내용

*모든 설명회가 통일됩니다.

13:00~14:00	참가자 접수
14:00~14:30	2016년 추진성과 및 2017년 정책방향 설명 ※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14:30~15:30	2017년 공모사업설명회
15:30~15:50	질의응답

2017년 주요 공모사업 개요(안)

사업명	사업 개요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내용 :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와 콘텐츠를 활용한 장소 특화형 및 콘텐츠 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규모 : 40개 단체(16년 우수단체 6개소 포함) X 3회 이상, 20~300백만원/단체 지원대상 : 지역문화재단, 문화기획자, 문화예술단체 등 신청방법 : 제안서 심사, PPT 및 인터뷰
청춘마이크	사업내용 : 청년 문화예술인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지원규모 : 160팀 X 6회 평균 1.5백만원/회팀 당 최대 4인 인원에 따라 지원액 조정 지원대상 : 만 19~34세 (1982.1.1~1998.12.31 출생자)의 문화예술인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및 오디션 "권역별 지역 주관처가 진행"
직장인 참여활성화	사업내용 : 평일 문화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가. 직장 배달 콘서트 - 지원규모 : 10개 단체 X 1~2회, 5~10백만원/회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문화기획자 등 나. 직장인 밀집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5개 사업 X 2회 이상, 15~20백만원/단체 - 지원대상 : 지역문화재단, 문화기획자, 문화예술단체 등 신청방법 : 제안서 심사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사업내용 : 가족, 오페라, 남극 등 소외된 예술 장르에 다양한 이야기와 색다른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 콘텐츠 제공 지원규모 : 12개 단체 X 2~3회, 10~30백만원 내외/회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문화기획자 및 예술감독 신청방법 : 제안서 심사, PPT 및 인터뷰